

이울뿐인 한미 FTA는 원천 무효다!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UR 협상의 실패로 간간히 명맥만 유지해 온 우리 낙농육우 산업은 이제 한미 FTA로 그 명맥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금일 접한 한미 FTA 협상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할 따름이며, 김중훈 수석대표가 이번 협상결과 수준을 스스로 '수'를 받고 싶다고 자화자찬한 발언에 대해서는 분노마저 느낀다.
2. 그 동안 초민감 품목이라던 낙농품과 관련하여, 분유 관세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였다는 하나, TRQ물량을 과도하게 내줌으로써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협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제품의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중요한 치즈와 수급교란의 주범인 혼합분유 또한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의 우유수급 불균형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유수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유와 치즈, 버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또한 FTA와는 별개라고 수차례 밝혀온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미국 측의 요구대로 다 내주는 꼴이 되어, 수입쇠고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3.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낙농산업은 위기에 대해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중장기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으나, 정부 의지의 한계로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확인할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일정에 쫓겨 타결한 한미 FTA는 우리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우리 낙농육우 산업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게 할 것이 자명하다.
4. 국민들을 무시하고 절차도 외면한 채 시작한 그들만의 리그가 농업말살 협상으로 끝이 났다. 우리는 농축산업 말살 협상인 한미 FTA 협상 타결 무효와 그 장본인을 심판하기 위해 350만 농민과 우리 농업을 생각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한미 FTA 협상타결은 무효다!

2007. 4. 2

한국낙농육우협회